

5월 종합상황 분석 · 전망 및 안전예보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 날 및 석가탄신일 등 휴일 축제와 행사 및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1 5월 중 기상전망

- ▶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일교차와 변동성이 크겠음.
- ▶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음

- (1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 (2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3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4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겠음

기간	요소	기 온		강 수 량	
		평년(°C)	전망	평년(mm)	전망
1주 (4.30~5.6)	영 서	14.4~15.8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5.7~21.2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영 동	14.4~16.4		5~18.6	
2주 (5.7~5.13)	영 서	15.2~16.4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11.7~34.9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영 동	14.9~16.9		7.2~35.8	
3주 (5.14~5.20)	영 서	15.7~16.9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6.8~24.6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영 동	16.1~18.1		3.6~19.9	
4주 (5.21~5.27)	영 서	17~18.4	평년과 비슷	3~24.3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영 동	16.8~18.6		4.5~19.6	

2 사회적 여건

- ▶ 어린이날을 기념한 행사 및 놀이시설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 ▶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및 본격 영농철 농기계 사고 위험
- ▶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및 건조한 날씨로 화재(산불) 위험

1. 가정의 달 행사(축제) 참가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어린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로 인한 야외활동 및 놀이시설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 봄철 각종 지역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

- 2018년 5월 지역축제 <江原道 관광마케팅과> -

어린이날 행사	인제용대리 황태축제	연등행사	춘 천 마임축제	춘천 봄내예술제	양 구 공취축제	고성저도어장 대문어축제
5.5 ~ 6	5.5 ~ 7	5.21~ 22	5.20 ~27	5.19-5.31	5.5 ~ 7	5.4-6

2. 석가탄신일(5.22) 연등행사 화재 및 안전사고 우려 증가

- 석가탄신일 전후 사찰 내 봉축행사 및 연등설치 등에 의한 화재발생 우려 증가 및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 대부분의 사찰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산중에 위치하여 신속한 초등 대응에 한계 상존

3. 봄철 산나물채취 등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증가

- 따뜻한 날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인구 증가
- 산나물, 약초 채취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산악 안전사고 증가
- 봄 축제등과 맞물려 음주 산행 등으로 추락사고 위험 증가

4. 본격적인 영농철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 증가

- 기계화 경작이 보편화되면서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 및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증가 우려
- 농기계의 정비 불량으로 전복·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 증대

II 소방활동 분석 (최근 3년간 5월중)

1. 화재발생(사고)현황 분석

5월은 3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로 주로 석가탄신일 전·후 촛불 연등행사 및 입산자 실화에 의한 임야화재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최근 3년(15~17년)간 도내 화재는 총 7,164건이 발생하여 386명(사망 57, 부상 329)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월평균으로 화재는 199건, 인명피해 11명 발생(사망2, 부상9)

※ 연도별 화재 건수(월평균) : 15년 2,485건(207건), 16년 2,315건(193건), 17년 2,364건(19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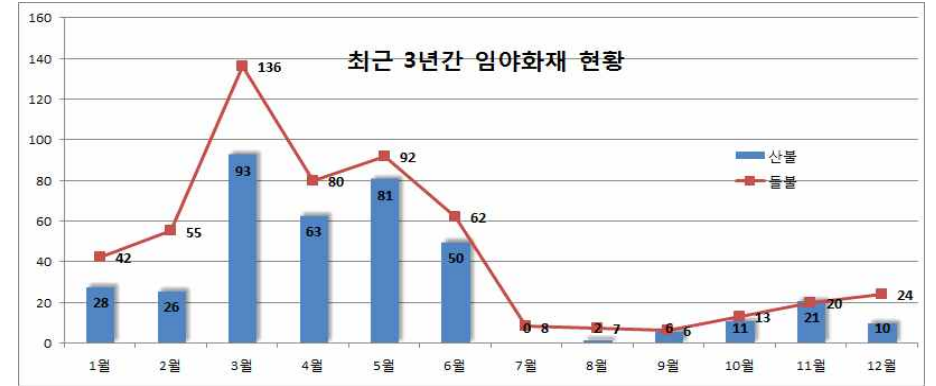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임야 및 야외(공터 등), 사찰 화재 현황

구분	연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야화재	312	374	465	292	259	284	215	295	351	282	303
야외화재	571.1	529	617	590	551	564	487	539	717	533	584
사찰화재	3.8	4	4	4	5	6	4	5	5	0	1

- 최근 3년간(15~17년) 월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5월이 11.4%(814건)로 연중 3월(1,043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15~17년) 임야화재 역시 3월(24.5%) 다음으로 5월(18.5%)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야화재 80%는 담배꽂초,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가 원인이었음.



- 3년(15~17년)간 5월 중 화재는 월평균 271건(총 8141건)이 발생하여 11명(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942,704천원(총 11,828,113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5월 총 33명으로 사망자는 2016년 및 2017년 각각 3명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2015년 12명, 2016년 4명, 2017년 11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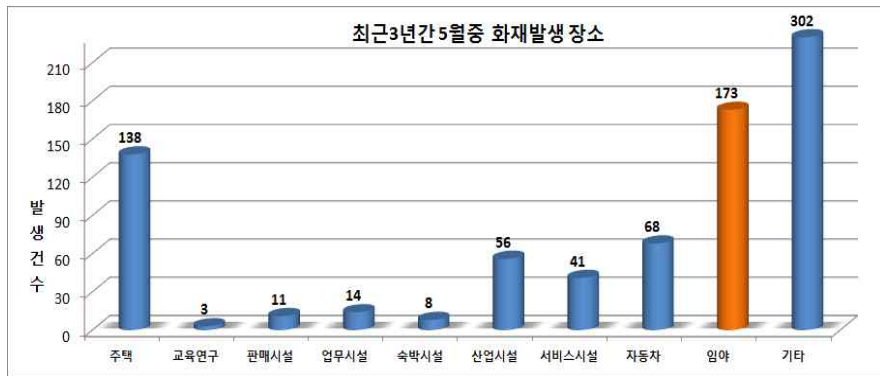
구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3년 5월평균	271	11	9	3,942,704
2015.5월	294	12	12	1,120,072
2016.5월	257	7	4	517,267
2017.5월	263	14	11	10,190,774
총 계	814	33	27	11,828,113



- 화재 원인은 5월 총 814건 중 부주의 558건(6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87건(10.7%), 기계적 요인 74건(9.1%), 원인미상 39건(4.8%), 기타 방화 의심, 화학적 요인, 교통사고,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화재발생 장소는 **임야 173건(21.3%)**, 주택 138건(17%), 자동차 68건(8.4%), 산업시설 56건(6.9%),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41건(5%), 업무시설 14건(1.7%), 판매시설 11건(1.4%), 숙박시설 8건, 교육연구시설 3건, 기타 302건 등으로 나타남.



2. 구조·구급 활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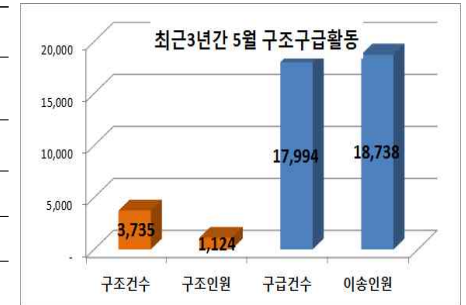
최근 3년간 5월은 전월(4월) 대비, 구조·구급건수 및 인원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산악 및 나들이 안전사고, 강풍 등 자연재해 사고예방이 필요함

- 3년간(15~17년) 전체 구조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별집제거가 45.3%(30,33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동물구조 12.3%(8,230건), 교통사고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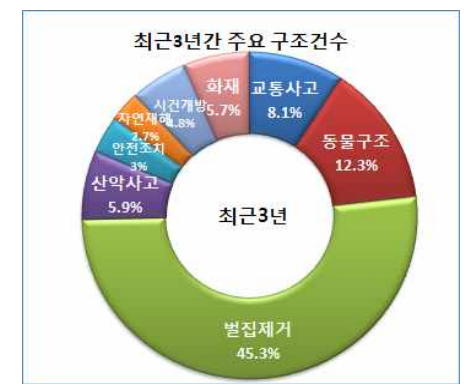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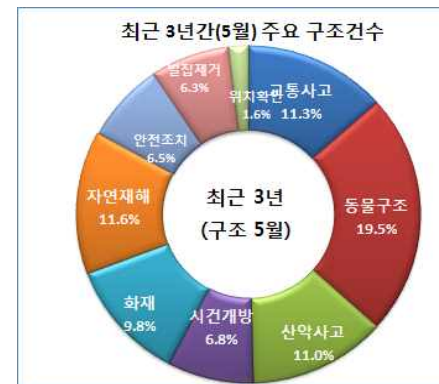
(5,408건), 산악사고 5.9%(3,974건), 화재 5.6%(3,787건), 문 개방 4.8%(3,229건), 기타 안전조치 3.2%(2,145건) 등의 순이었음.

- 최근 3년간(15~17년) 5월중 구조 3,735건(1,124명), 구급 17,994건(18,738명)이었고, 전월 4월 구조 2,590건(766명), 구급 16,256건(16,903명)에 비해 큰 폭 증가함.

구분	구조		구급	
	구조건수	구조인원	이송건수	이송인원
계	3,735	1,124	17,994	18,738
2015.5월	1,028	425	6,172	6,460
2016.5월	1,505	364	5,720	5,946
2017.5월	1,202	335	6,102	6,332



- 5월중 구조출동 실적은 **동물구조 730건(19.5%)**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자연재해 11.6%(432건), 교통사고 11.3%(423건), 산악사고 11%(409건), 화재 9.8%(365건), 문개방 254건, 안전조치 242건, 별집제거 234건, 위치확인 60건, 승강기 사고 56건, 수난 53건 등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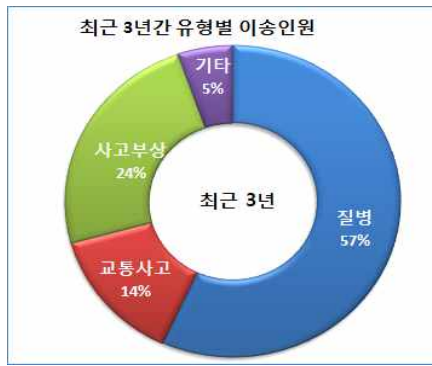
구분	계	교통	동물구조	별집제거	산악	수난	승강기	문개방	자연재해	위치확인	화재	추락	기타
3년간 총계	66,933	5,408	8,230	30,338	3,974	908	720	3,229	1,807	621	3,787	621	7,290
3년간 5월중	3,735	423	730	234	409	53	56	254	432	60	365	69	650

- 3년간 전체 구급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92,238건 출동하여 67,901건(70,959명) 이송하였고, 그 중에서 5월중에는 연평균 8,546건을 출동하여 5,998건(6,246명) 이송함.



구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비율	미이송건수	비율	이송인원	비고
3년간 총계	276,715	203,704	76.9%	73,011	26.4%	212,877	-
3년간 5월중	25,637	17,994	70.2%	7,643	29.8%	18,738	-

- 3년간 전체 구급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이 56.9%(121,03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고부상 24%(50,933명), 교통사고 13.8%(29,477명) 등 순임.
- 5월중 구급이송 실적은 질병 56.1%(10,516명), 사고부상 23.6%(4,413명), 교통사고 14.6%(2,737명), 기타 1,07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계	질병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타
3년간 총계	212,877	121,034	29,477	50,993	11,373
3년간 5월중	18,738	10,516	2,737	4,413	1,072

3. 중점 추진사항

「가정의 달」 각종 행사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와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영농기 쓰레기 소각 부주의 산불 등 예방홍보 강화 필요

1. 가정의 달 축제·행사장 등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추진

- 지역축제(공연 등) 안전관리계획 및 축제현장 안전점검 강화
- 공연장 안전관리 요원(종사자) 사전 안전교육
- 공연 및 축제장 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력 전진 배치
- 행사장 방문 단체 관광차량 정기점검 및 과속금지 등 안전운전 홍보

2. 석가탄신일(5.22) 대비 긴급대응태세 확립

- 전통사찰 미 인증 전기시설 등 사용금지 안내 및 촛불가스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관계인 지도
- 사찰 현장여건 사전 파악 예방활동 및 현장대응태세 확립
- 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협조체계 유지(비상연락 체계 구축)
-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3.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간이응급의료소, 시민산악구조봉사대 운영
-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언론매체 홍보, 심폐소생술 등 안전수칙 교육
- 산악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안전표지판 정비·보강
- 강원119신고 앱(APP) 활용, 산악사고 예방 안전정보 홍보
- 산악사고 위험지역 합동 안전점검 적극 지원

4. 건조기 산불예방홍보 및 대응력 강화

- 취약지역 경계순찰 강화 및 의용소방대원 동원 홍보캠페인
- 소방관서 보유 산불진압장비 등 소방력 집중 투입
-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구축 및 산불대응자원 적극 지원

III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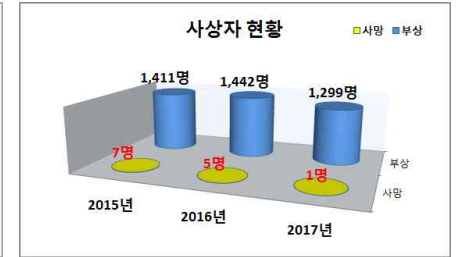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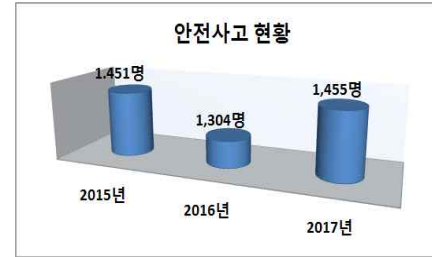
- 5월은 임야화재가 집중 발생하는 달이므로 임야화재 예방홍보 및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연소확대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어린이날 행사(지역 축제)와 및 석가탄신일 등 특별 상황관리 및 예방·경계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5월 주요재난 안전사고 예보 1부.
 2. 최근 3년간 화재 주요 사례 1부.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1부. 끝.

붙임 1 5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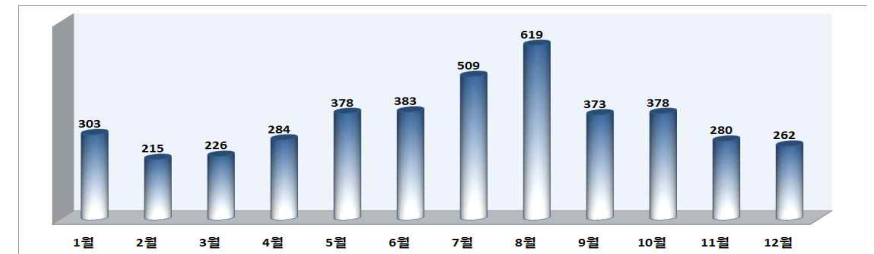
가정의 달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

□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최근 3년간)



- 5월은 ‘가정의 달’ 각종 행사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놀이시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높아지는 시기임.
- 최근 3년(‘15~’ 17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로 4,210명(사망 13, 부상 4,152)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시기별 발생추이를 보면 봄철인 5월부터 증가하여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 겨울철까지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5월은 378명(9%)으로 연중, 8월 919명, 7월 509명, 6월 383명에 이어 연중 4번째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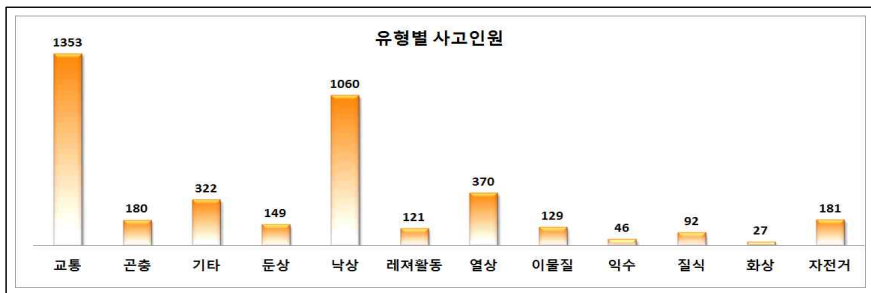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최근 3년간)】



□ 사고원인별 분석(최근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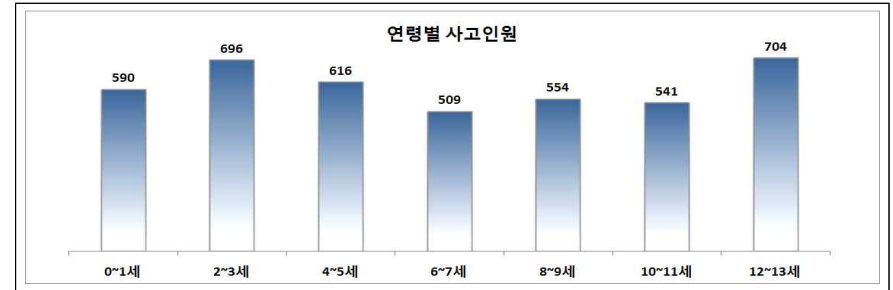
○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에 따른 사상자 현황을 분석하면 **총 4,210명 중 교통사고 32.1%(1,353명)와 사고부상 67.9%(2,857명)**으로 각각 나타남.

- 먼저 **교통사고를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동승자 939명**, 보행자 308명,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 106명으로 나타났다고,
- **사고부상을 보면 총 2,847명 중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37.1%(1,0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카로운 물건 등에 의한 열상 13%(370명), 뜨거운 물과 고온체 등에 의한 화상 181명, 곤충 또는 동물에 의한 경우와 자전거 사고가 각각 180명, 책상 모서리 등 부딪치는 둔상 149명, 동전이나 장난감 등 이물질을 코에 넣거나 삼키는 경우 129명, 스키 등 레저활동 121명, 음식물을 넘기거나 연기 등에 질식 92명, 익수 46명, 기타 322명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어린이사망자는 대부분 교통사고나 수난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교통사고 5, 익수 4, 추락 등 기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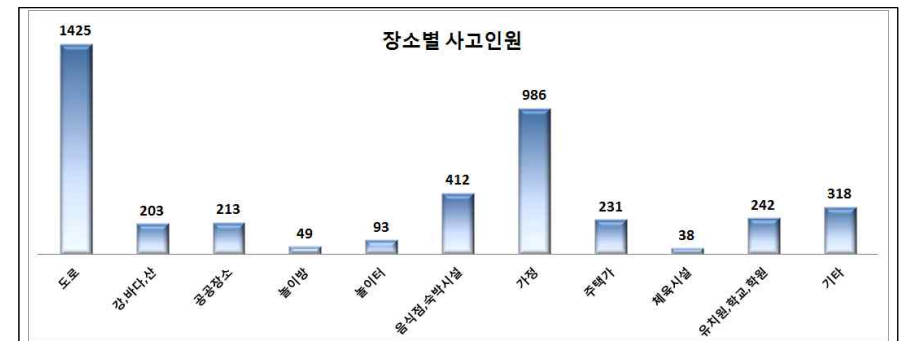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보면 총 4,210명 중 12~13세 16.7%(704명)**, 2~3세 16.5%(696명), 4~5세 14.6%(616명), 0~1세 14%(590명), 8~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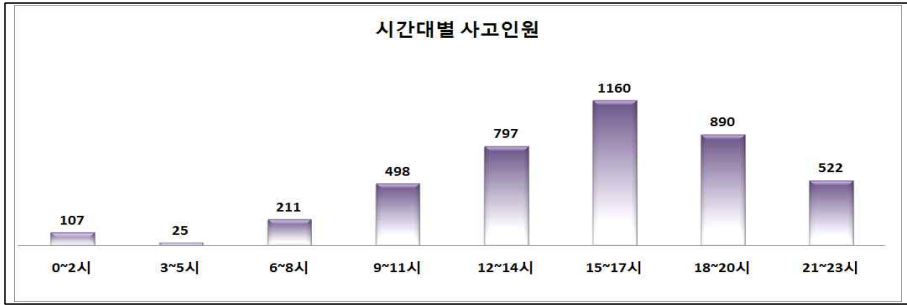
13.2%(554명), 10~11세 12.9%(541명), 6~7세 12.1%(509명) 순이며, 성별로는 남자 어린이 63.1%(2,657명), 여자 어린이 36.9%(1,553명)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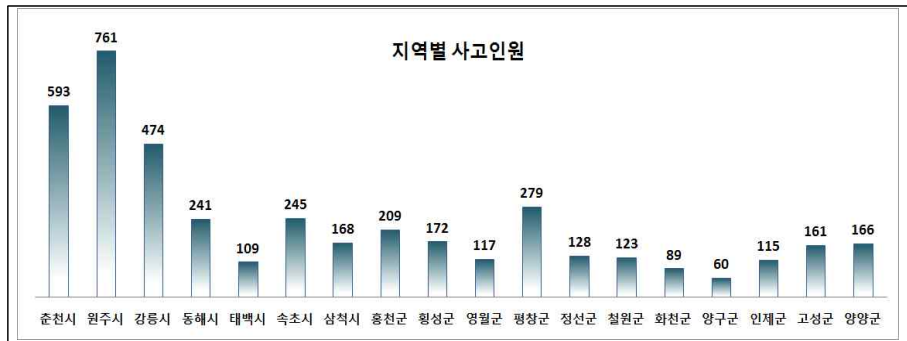
□ **발생장소를 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경우가 33.8%(1,42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가정 23.4%(986명), 음식점 또는 숙박시설 9.8%(412명), 유치원·학교·학원 242명, 주택가 231명, 기타 공공장소 213명, 강·바다·산 203명, 놀이터 93명, 놀이방 49명, 체육시설 38명, 기타장소 318명 등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 오후 3~6시 27.6%(1,160명)로 가장 많았으며**, 저녁 6~9시 21.1%(890명), 낮 12~3시 797명, 밤 9~12시 522명, 아침 9~12시 498명, 6~8시 211명, 새벽시간대 132명 등으로 나타났다.



□ 발생 지역별로 보면 원주시 764명, 춘천시 595명, 강릉시 458명, 평창군 284명, 속초시 243명, 동해시 229명, 홍천군 204명, 횡성군 187명, 삼척시 179명 등으로 나타났다.



붙임 2 최근 3년간 5월 화재 주요 사례

순번	사고일시	사고개요	피해상황
1	2017. 5.12(금) 08:05	원주시 흥업면 창고 화재 	- 미상 - 3개동250㎡ 소실 - 2억2백만원
2	2017. 5.6(토) 15:27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불 	- 미상 - 2,490,840㎡ 소실 - 66억여원
3	2016. 5.27(금) 16:50	양양군 손양면 어구보관 창고 화재 	- 미상 - 2동 264㎡ 소실 - 9천9백여만 원
4	2016. 5.5(목) 22:08	원주시 평원동 차량 화재 	- 미상 - 차량 1대 소실 - 사망1, 중상1 - 5백만원
5	2015. 5.27(수) 20:46	원주시 신림면 주택화재 	- 회원방치 추정 - 1동 140㎡ 소실 - 7천5백여만 원
6	2015. 5.10(일) 04:25	횡성군 우천면 톱밥 제조 공장 	- 자연발화 추정 - 1동 315㎡ 소실 - 2억2천여만 원

붙임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방과 거실에서는

- 벽에 무거운 물건을 걸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습니다.
- 창문의 모양에 따라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안전망이나 난간을 설치합니다.
- 어린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으므로 창문 옆에는 침대나 가구를 두지 않습니다.
- 창틀 위에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의 뒷부분이나 전기콘센트, 난방기구 등을 만질 수 없도록 설치하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 덮개로 덮어주도록 합니다.
- 의약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합니다.

욕실, 화장실에서는

- 세면대에 매달리거나 변기 뚜껑을 밟고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욕실 앞 깔개는 뒷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것을 선택합니다.
- 욕실의 벽이나 욕조 바로 옆에 손잡이 봉을 부착하여 미끄러질 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바닥에 고무매트나 안전발판 같은 미끄럼 방지 도구를 깔아둡니다.
- 아이가 비누조각이나 샴푸 등에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비누는 비누 곁에 넣고 샴푸는 즉시 마개를 닫아 둡니다.
- 아이들이 어른들의 전기면도기나 헤어 드라이기 등을 욕실에서 젖은 손으로 만지고 장난 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 모든 전기제품은 욕실 밖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책이나 욕실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욕조나 변기, 세면기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반드시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합니다.
- 만 3세 미만의 아이는 욕조에서 익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혼자 욕실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 세탁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주방에서는

- 뜨거운 국이나 물이 담겨있는 냄비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냉장고 문이 잘 닫혀있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 싱크대 문을 열고 닫을 때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모든 천장과 서랍은 잠금 장치를 하거나 손쉽게 열 수 없도록 버튼용 개폐방지 손잡이를 부착합니다.
- 칼이나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위험한 물 건임을 알려주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아이가 가스렌지를 만지지 않도록 하며 항상 중간밸브를 잠그고 가스누설 자동 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 튀김요리를 할 때는 아이들의 접근을 막도록 하며 기름을 식힐 때는 장소를 잘 선정하여 화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튀김용 냄비 등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창문, 베란다에서는

- 창문, 베란다에는 창문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방충망으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 문이나 창문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어린이가 혼자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합니다.
- 어린이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거나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지 않도록 합니다.
- 창문 가까이 가구나 영·유아의 시선을 끄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 베란다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치우도록 합니다.
- 베란다에서는 가급적 어린이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계단에서는

- 표면이 미끄러운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계단 하나하나에 미끄럼 방지틀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 계단에는 충분한 높이의 튼튼한 난간을 양쪽에 설치합니다.

- 난간은 계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 계단은 항상 밝게 조명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물체나 물기가 없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 보호자는 반드시 아래쪽에서 걸어갑니다.
- 계단에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네를 탈 때에는

-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린다.
- 다른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거나 그 앞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 그네 중앙에 앉아서 탄다.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한 그네에 한 사람만 타고, 두 명이 한꺼번에 타지 않는다.
- 줄을 꼭 잡고 타며, 타는 도중 뛰어내리지 않는다.

미끄럼틀을 탈 때에는

-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 하나씩 올라간다.
-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 미끄럼판에서는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온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도
- 가방, 장난감을 들고 타지 않는다.

흔들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 시소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는다.
-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내린다.
-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는다.

회전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지 않는다.
- 회전중에 친구와 장난(예: 밀기)하지 않는다.
-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하지 않는다.
- 회전 중에 회전대를 멈추게 하려고 붙잡지 않는다.
- 회전대를 발로 돌리지 않는다(발이 끼일 위험).
- 회전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정글짐·오르는 기구를 탈 때에는

- 오를 때는 두 손을 사용하고 손잡이를 꼭 쥐고 이용한다.
- 시설이 비에 젖었거나 뜨거울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 꼭대기에서 눕거나 앉지 않는다.
- 꼭대기에서 거꾸로 매달리거나 걸터다니지 않는다.
-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 내려올 때 뛰어내리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천천히 내려온다.

건너는 기구를 탈 때에는

- 받침대를 두 칸씩 한꺼번에 지나가지 않는다.
- 흔들다리 위에서는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하며, 절대 뛰어가지 않는다.
- 흔들다리에서는 손잡이와 받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행동은 절대하지 않는다.

공중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 좌석형 공중 놀이기구는 서서 타지 않는다.
- 정해진 인원 이상이 사용하지 않는다.
- 타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밀지 않는다.